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해요”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26개 교회와 12개 선교단체가 연합해 사랑의 마당축제를 지난 5월 3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발달장애우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행사의 한편,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연합하고 교류하는 친교의 장으로도 자리매김했다. 이날 참석자는 약 1천여 명이였다.

연방대법 “공공기관 기도는 합헌”

UMC 한인총회 회장 이성현 목사
 PCA 한인교협 회장 민경엽 목사

기도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 기독교적 메시지도 금지 못해

美 주요 교단 한인총회 대표들 선출

공공기관에서 각종 모임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연방대법원이 5일 판결했다. 기도 자체가 합헌일 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특정 종교에 편향돼 있더라도 무방하다고도 했다.

1983년 마쉬 대 챔버스 소송(Marsh v. Chambers) 이후, 30여년 만에 치러진 그리스 대 갤로웨이 소송(Greece v. Galloway)에서도 연방대법원이 기도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던 공공기관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욕 주 그리스 시는 타운을 미팅 때마다 기도해 왔는데 이에 대해 유대인인 수잔 갤로웨이 씨와 무신론자인 린다 스테프스 씨가 기독교 편향적이라며 위헌 소송을 낸 바 있다.

갤로웨이 측은 기도 인도자 다수가 크리스천이며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종교인에 대한 차별이

라고 주장했다. 그리스 시 외에도 미국 다수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기도에 대한 갈등이 진행되던 터라 이 소송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또 마쉬 대 챔버스 소송에서 “의회 개회시 기도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라고 판결했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도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종교 자유 역사와 현 주소도 점검할 기회로 인식됐다.

이 소송은 “기도할 권리” 그 자체보다는 “기독교적인 기도를 금지시킴”에 대한 의도가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기도가 반드시 여러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경계했다. 그는 “기도가 중립적(nonsectarian)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주관

하는 의회나 이 문제를 다루는 법정으로 하여금 종교적 발언을 검열하고 심의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즉,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단순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기독교적 기도를 하는 것도 보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이 소송에 대해 뉴욕 지방법원은 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으나 제2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현재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는 “기도가 특정 종교에 편향적이지 않다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지만 무신론자들의 무차별적 소송과 그 소송 비용을 두려워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도하던 전통을 자발적으로 폐지하고 있었다.

>> 4면에 계속



이성현 목사



민경엽 목사

연 합 감 리 교 회 (UMC) 한 인 총 회 는 지난 1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성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성현 목사는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소재한 드림교회에 담임하고 있다.

1984년 목사로 안수받은 후, 미국인 목회를 하다 뉴저지 그레이스한인 연합감리교회를 개척했다. 그는 제네바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후, 에모리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웨슬리신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중

에 있다.

미국 장로회(PCA) 내 한인교회 연합체인 한인교회협의회도 위스콘신에서 열린 제17차 총회에서 민경엽 목사를 회장에 선출했다. 민경엽 목사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는 브레아에 소재한 나침반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직을 현재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교 등에서 공부했다.

>> 관련기사 3면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나라 오토 덴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세계의 중심에서 신학교육의 지평을 넓혀 갑니다**

2014년 여름계절학기 강의시간표

과목명	담당교수	시간	기간
B.A. & M.Div. 미주 2세 교육철학	한영수	주간	5월 26일 (월) ~ 30일 (금)
"고델 (GOEL) 포럼" * "고델 포럼"은 일인일 무료 참석가능. * "고델 포럼"은 "고델 포럼"이라는 뜻입니다.	9명의 강사들	주간	6월 9일 (월) ~ 12일 (목)
B.A. 기독교윤리학	강우중	주간	6월 9일 (월) ~ 13일 (금)
동양철학개론	구경모	주간	6월 16일 (월) ~ 20일 (금)
한국교회의 신학사상사	박정환	주간	6월 16일 (월) ~ 20일 (금)
에스.비.비전과 현실사이에 선 선지자	김수정	야간	6월 16일 (월) ~ 27일 (금)
구원론과 종말론	김상규	주간	6월 23일 (월) ~ 27일 (금)
신구약 중간사	이상명	주간	6월 30일 (월) ~ 7월 3일 (목), 7일 (일) * 휴학기간인 7월 4일 (금)은 제외.
히브리서 신학	TBA (수강자)	야간	7월 7일 (월) ~ 18일 (금)
세계신교의 역사	김신	야간	7월 21일 (월) ~ 8월 1일 (금) * 수요일 (23일과 30일) 제외.

■ 강의시간: (1) 주간반 (1주간) - 9:00 A.M. ~ 5:00 P.M. (2) 야간반 (2주간): 7:30 P.M. ~ 11:00 P.M.
 ■ "미주 2세 교육철학" 과 "고델포럼"은 일인일 무료 참석가능.
 ■ "고델 (GOEL) 포럼" 강사진: 고승희 (아름다운교회담임), 민종기 (총현신학교담임), 정진영 (TEDS), 김지현 (총신대), 박산중 (TRINITY INT'L UNIV.), 이말찬 (예신대), 김형균 (필로신교회담임), 본교교수 (이상명, 조진성, 김수정)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edu / office@pts.edu

Adam Jung
 모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B.A. 과정 재학생

2014년 여름계절학기 가을학기 신입입생 모집

01 pts 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과정 (온라인 원격강의 개설)
 여름계절학기 개강일 : 2014년 5월 26일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8월 25일

02 pts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산타페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
 여름학기 개강일 : 2014년 5월 19일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9월 8일

■ 입학 및 등록: 본교 홈페이지 (www.pts.edu) '입학 정보실' 참조
 ■ 입학관련 문의: 미국 1-562-926-1023 ext.300 / office@pts.edu 한국 010-6612-1165 (담당: 박정환 목사)
 ■ ESL 문의 및 상담: 강우중 교수 (wjkgang@pts.edu)

03 pts 2014년 가을학기 야간 강의 - 나성영락교회에서 개설
 2014년 여름계절학기과 가을학기 - 온라인강의 수강 가능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ARBE

총장 이상명 박사 / 이사장 김인식 목사
 ※ Office 임대합니다. (1,300, 900, 800 sqft)

“현재 미국의 위기는 믿는 자들의 문제”

제63회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교인들 모여 통성으로 기도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에 남가주 지역 한인들도 동참했다. 사진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기도회.

“현재 미국의 위기는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 미국인들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열리고 있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연합기도회가 지난 1일(목) 미 전국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남가주 한인교회는 오후 7시 30분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기도회에 동참했다.

기도회에 앞서 예배에서 “지금은 비상하게 기도할 때”(로마서15:6, 역대하7:14)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JAMA 대표 김춘근 교수는 “지금 미국은 역사상 영적으로 최대 위기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해 낮아져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악한 죄로부터 지키실 것”이라며 “현재 미국교회에서 백인들의 기도는 힘을 잃고 있고, 대부분의 흑인 목회자들은 청교도 신앙의 회복보다는 흑인 해방 신학을 추구하고 있으며, 히스패닉은 (위험한 이야기) 수 있지만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온건지 불분명한 모습이 많다. 우리 한국인이 희망이기에 기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한민국만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도 나의 나라로 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미국을 위해 기도해 힘쓰자”고 독려하며 회

개기도를 이끌었다.

이날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중보기도를 했으며, 자신과 미국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 와 함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동성 결혼 철폐와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위해, 공립학교와 각급 교사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영화 TV 방송 인터넷 언론계의 복음화를 위해, 대통령과 장관들을 위해, 입법부 사법부 군 지도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와 LA시를 위해, 한인교회와 차세대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기도회에 김현수 목사(토렌스선한목자교회), 김대준 목사(LA비전교회), 정영희 목사(월서연합감리교회), 정장수 목사(올림픽장로교회),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정시우 목사(미국국가방위군 군종감), 정우성 목사(남가주교회 부회장), 권태산 목사(하나님의 꿈의교회), 김광수 목사(남가주교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예배는 환영인사 및 기도 정중운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성경봉독 백지영 목사(남가주여성목사회 회장), 특별찬양 글로벌메시아찬양선교단(노형건 선교사), 헌금기도 이철훈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 축도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 총장)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에이

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이 필요하다 제안한 이후, 1952년 의회의 결의에 따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됐다. 이날엔 미국 전역에서는 4만2천여 곳에서 기도회가 열려 미국을 위해 기도한다.

이 국가 기도의 날은 무신론자들에게 의해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극적으로 부활했다. 당시 위헌 판결 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해 이 행사가 미국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재확인 하기도 했다.

남가주 교계도 수년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남가주한인목사회, 자마(JAMA) 등을 중심으로 이 행사를 지키고 있으며, LA 지역 외에 오렌지카운티 지역은 은혜한인교회 월드프레이어센터에서 같은날 오후 8시에 개최했다.

OC 지역 기도회에서는 김영찬 목사(OC 목사회회장)가 대표기도, 오성훈 목사(주빌리동일구국기도회 상임목사)가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후,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기도를 인도했다.

한 목사는 미국을 위한 기도는 물론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국을 위해서도 특별기도했다.

토마스 맹 기자



방주교회 성도 6명이 LA시로부터 커뮤니티 봉사상을 받았다.

4년째 지역사회 식사 봉사한 방주교회

방주교회(김영규 목사)가 설립 3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4일 오후에 드렸다. 이날 LCMS(미국루터교단) 한인총회장 홍영환 목사(중앙루터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벤전 2:6-10)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특별히 이날 방주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랑의 점심식사’ 모임 봉사자들이 허브 웨

슨 LA시의장으로부터 커뮤니티 봉사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전 회장, 김석중, 이재한, 김명희, 박상우, 김원태 성도 등이다. 김영규 목사는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방주교회는 사랑의 점심식사 봉사를 4년째 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올해 VBS에 필요한 자료를 한 자리에서

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가 주관하는 여름 성경학교(VBS) 교사 강습회가 오는 5월 10일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된다. CEF는 매년 이맘 때마다 교사 강습회를 열고 지역교회들의 여름성경학교 준비와 교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강습회는 1. 교회학교 교사들의 훈련과 교육을 위한 VBS 트랙, 2. 찬송과 율동 트랙, 3. 주일학교 리더 트랙, 4. 유아/유치부

트랙, 5. 유/초등부 트랙 등 다섯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는 유망 찬양 사역자인 제나 알라야가 특별 강사로 초대돼 찬양 인도의 은혜와 기쁨도 나눌 예정이다. 또 찬양과 율동, VBS 계획과 준비, VBS 이후 관리, 인형극, 게임과 복음 매직, 전도법, 풍선워십 등에 대한 자료도 제공된다.

> 문의) 213-382-1544

www.cefkoc.com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6기생 수료자 배출해



제6기 수기치료 의료선교사가 배출됐다.

오직 손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를 양성하는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대표 박승부 장로)이 6기생 의료선교사 14명을 배출했다. 지난 4일 열린 수료예배에서 설교한 엄기환 목사는 “배운 의술로 약한 자의 약

점을 담당하고 치료하라”고 권했다. 박승부 장로는 수료자들에게 증서를 전달했으며 수료자 중 장기웅 장로가 박승부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 재단은 현재 7기생 수기치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 문의) 213-605-2928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어름더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리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jy@gmail.com

“세계성경장로교회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성경 증만, 말씀 증만, 천능 증만

임복만 목사 초청 춘계 말씀 축제
주제: **회복과 부흥 and 오직 성령으로**

임복만 목사 (청주 원동교회 담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실무회장 역임
감리교 전국부흥단 전임단장 역임
미국 코헨대학 국제(79개국)부총장
C.U.T.S 한국학술원장
현 청주원동교회 개척담임

하서님의 귀한 말씀 축제에 너무나
귀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임복만 목사님과 함께 만나시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것 입니다.
초대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25일(주일) 오전 11시 겔 37:7~10
"오직 성령으로"
26일(월) 오후 7시 30분 고전 1:10~17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27일(화) 오후 7시 30분 고전 12:4~11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28일(수) 오후 7시 30분 골 3:23
"봉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세계성경장로교회 World Bible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강 신 권 Rev. Paul S. Kang, Th.D., Ph.D.
17002 Prairie Avenue, Torrance, CA 90504
T. (424) 257 - 8169 C.P (562) 761 - 5242
www.wbpc usa.com . drpaulkang@hotmail.com



한인교회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PCA 내 한인교회 연합체인 CKC가 위스콘신 주에서 제17차 총회를 개최했다.

KUMC 신임 총회장에 이성현 목사 선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Korean Association of the UMC) 신임 총회장에 이성현 목사(LA드림교회)가 선출됐다. UMC 한인총회는 1일 롱아일랜드 아일랜드 매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된 UMC 한인총회 넷째 날 총회장 선거를 실시, 만장일치 박수로 단독 후보인 이성현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다.

이성현 총회장은 "UMC 한인총회가 40년 됐다. 그동안 많은 모세들이 배출됐다"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다. 그러한 한인총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현 총회장은 "함께 목회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함께 하시면 풍성할 것"이라면서 "2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인총회가 되도록 하겠다. 부족하기에 기도해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이성현 총회장은 "해야할 일

이 많다. 약속의 땅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40년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 같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례도 하라고 해서 한인교회 내 직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거저 주어지는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인교회와 평신도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 마지막날 진행된 회무에서는 한인교회 내에 사용되는 평신도 직제에 관해 UMC 총회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2016년 UMC 총회에서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을 임원회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 40주년을 맞은 UMC 한인총회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40주년 역사편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한상식 목사를 세우기로 했다. 40주년 역사편찬위원회는 차기 임원진과 함께 40년 역사를 총망라하게 된다.

김대원 기자

PCA 한인교협 회장에 민경엽 목사

제17차 총회 및 수련회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미국장로회 한인교회협의회(PCA-CKC) 제17차 총회 및 수련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3박 4일간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 위치한 라이프 크리교회(담임 양성일 목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미국장로회 산하 8개 한어 노회에서 목사와 사모 그리고 장로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저녁 예배에는 감사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가 첫째날 "위대한 교회의 출발점," 둘째날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셋째날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증거했고, 셋째날 오전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됐다.

모임 셋째날인 4월 30일 오후 1시에 열린 PCA-CKC 제17차 정기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소재 나침반교회 민경엽 목사가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리고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부회

장 김태권 목사(동부), 차세대 부회장 Billy Park 목사(동남부), 장로 부회장 전준홍 장로(서남), 총무 김성철 목사(수도), 부총무 이후찬 목사(동북), 서기 김상선 목사(서남), 부서기 박수현 목사(서북), 회계 신정훈 장로(서남), 부회계 남성우 목사(중부), 감사 나성균 목사(동남부), 감사서정곤 목사(중부), 감사 이구광 목사(남부)를 승인했다.

신임 회장 민경엽 목사가 지난 1년간 한인교회협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섬김으로 봉사한 직전 회장 박선식 목사(포도원장로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폐회예배 설교를 통해 "각 교회가 섬기는 교회의 이름값을 하자"고 권면했다.

한편, 동일 장소에서 17명의 영어권 목회자들이 Min Chung 목사(동남부)와 Billy Park 목사(동남부)를 감사로 모시고 영어권 목회자 모임을 갖기도 했다.

조요한 기자

미주성결교회 신임 총회장 캐나다의 김병곤 목사

미주성결교회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35차 정기총회에서 김병곤 목사(캐나다 새순교회)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다. 김병곤 목사는 "무엇보다 화목하고 연합하여 바른 교단, 힘찬 총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면서 "성결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복미와 남미에 성결교회가 없는 지역을 조사하고 미주 내 작은 교회 상황 등을 조사해 미주 국내선교위원회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조종근 목사(사우스베이션교회)와 최대현 장로(시온성교회)가 각각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에 선출됐다.

박기성 기자



김병곤 목사

기감 미주연회 LA측 연회 개최

타인종 준회원 가입 및 목사 임직식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 LA측이 제22회 연회를 "올더스게이트로 회복하는 감리교회"라는 주제 아래 개최했다. 지난 29일부터 남가주 버클라델비아교회에서 열린 연회는 전야행사, 개회예배, 웨슬리 세미나, 은퇴찬양예배, 목사안수식, 폐회예배 등의 일정으로 30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연회에는 김영현 관리감독을 비롯해 데이빗 팔리 칼팩연회 선교국장 등 교단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특히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초빙교수이자 영국감리교회의 유일한 한인 목사인 김동환 목사가 감리

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영성에 대한 강의를 두 차례에 걸쳐 맡았다.

또 하현용, 안데이빗, 정인식, 변석희, 조원직 전도사 등이 목사로 임직하고 준회원에 올리비아 레이즈, 이동근, 조규홍, 범민훈 전도사가 가입했다. 특히 타인종인 레이즈 전도사가 미주연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해 의미가 컸다. 이 연회 기간 중에는 김민희, 조창오, 조병국, 김덕규 목사가 은퇴했다. 한편, 지난해 연회에서 LA측과 뉴욕측으로 갈라선 미주연회는 한국 교단 본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이 깊다.

김준형 기자



기감 미주특별연회가 남가주 버클라델비아교회에서 열렸다. 연회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 ©연회 제공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방출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450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 1701 W Orange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내선번호: 344) | T.213.453.6624 (아이랑마켓일군)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 New York : Forest Hills |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북한은 '강도 만난 이웃' 과 같아... 난 진짜 보수면서 진짜 진보

7월 25-27일 한반도 평화행진 준비하고 있는 연합감리교 통일위원회 회장 김정호 목사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DC에서 '한반도 평화행진'이 열린다.

이번 평화행진에는 한인연합감리교교회 통일위원회(회장 김정호 목사)를 중심으로 한 연합감리교회(UMC) 산하 여러 기관들과 세계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미국 내 여러 교단과 평화 운동 단체 등이 함께 하게 된다.

지난 달 4월 7-9일, 아틀란타 한인교회 수양관에서 열렸던 통일위원회 2014년도 총회를 마친 뒤 통일위원회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2012년 연합감리교회총회에서 통과된 '한반도 평화 행진' 청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4년 계획을 세우고, 2013년부터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이민 연합감리교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작지만 깊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5일과 27일에 워싱턴 DC에서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한반도 평화행진과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또 세계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미국 내 많은 교단들과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추구하는 일들을 의논하고 계획하려 합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작지만 신실한 발걸음이 평화의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애틀랜타에서 열렸던 평화 컨퍼런스에 이어 올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행진'을 추진하고 있는 통일위원회의 중심에서 있는 김정호 목사(아틀란타한인교회)를 만났다. 30년 이상 북한선교를 해온 김정호 목사는 진보에서는 '기독교 반동 보수'로 보수에서는 '친북인사'로 극과 극의 오해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는 "북한의 백성들은 '강도 만난 이웃'이다. 그래서 북한을 돕는 오병이어 선교를 할 때 가능한 직접 전달해 주면서, 중간에 관료들에게 반 정도만 떼어 먹으라고 한다. 그 나머지 반이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직접 가서 봐야 한다. 북한은 이념주의 사회지만 동시에 현실주의자들이다. 그런데 친북성향을 가진 비현실적 이념주의자들이 북한 관련 운동이나 평화 운동을 많이 한다. 소위, 이념주의적 죄과들이다. 사상과 생각으로만 친북이지 정말 북한 동포들이 살길은 생각 안 한다. 이런 사람들과 부딪혀 중간에 통일위원회를 그만두기도 했다. 나는 '진짜 친북'이 되려면 북한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는 게 돼야지 북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위원회 안에도 지난 30년간 사회 이론의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 진보 그룹은 상대적으로 교회적 기반이 약해져 방법론적인 목소리는 내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오히려 북한

선교는 보수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창순 목사가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이어온 나진 청소년 센터, 국수공장, 빵 공장 지원 등 오병이어 선교의 열매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통일위원회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다만 통일위원회의 선교 수위는 항상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수준에 맞춘다.

"평화협정을 이야기 한다고 그 자체를 '중북'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감리교회 소속 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을 돕는다고 '중북'이라고 치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 어느 시대라도 극좌파나 극우파는 못 말린다(웃음)"고 언급한 김정호 목사는 "왕과 영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영웅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장렬하게 전사해 버리지만, 왕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적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웃도 벗을 수 있는 사람이다. 국민을 200만이나 굶어 죽게 하고, 결정적으로는 탈북자들이 수 만 명씩 나오고, 조선 여자들이 중국에 팔려가기 시작할 때 나는 이미 북한 정권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중북은 말도 안 되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다. 유엔 인권보고서에 김정호를 인권탄압자로 규정하는데 어떻게 그 정권을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나? 그것도 조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무식하고 비겁하고 패쇄하다. 반면 분단된 민족에 대한 아픔은 없이 분노만 지속하는



KUMC 통일위원회 김정호 회장

(극보수) 사람들 역시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가난해서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 내버려 두고 김일성 욕만 하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할거냐? '애들한테 웃이라도 갖다 주고 우유라도 먹이고...그래서 욕은 좀 먹었지만 이불 한 장이라도 주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정호 목사는 "어느 사회나 여와 야가 있다. 오른쪽과 왼쪽 날개가 공존해야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모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다. 북한은 사마리아 땅과 같은 곳이다. 이 시대 크리스천으로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북한의 동포들을 돕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지만 성실하게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존중한다. 반면 무책임하게 자기 생각만 이야기 하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좌파나 우파나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언제 한번은 독일 출신의 교단 선교국 책임자가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줬다. 독일 사람들도 통일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동독의 교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 촛불기도회가 있었는데, 촛불기도회에 2만 명이 되는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서독교회 목사들 역시 월급을 동독교회 목사들과 나눴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목사들부터 1프로 나누기 운동을 한다. 통일기금인 것이다"라며 교회 역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몇 년 전에 한국 소록도 나환자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나환자들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손이 없어 성경을 넘기지 못하고, 입이 찌그러져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못하는 분들이었다. 새벽 4시에 설교를 마치고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 '목사님, 우리는 일제 시대 핍박과 공산당의 핍박을 이겨낸 교회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조국 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합니다.' 소록도는 한반도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곳인데 우리가 잘나서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분들의 기도, 일제 시대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들의 기도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 알았다. 좌파나 우파나 너무 똑똑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일은 없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남과 북이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서로 가까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했다.

박현희 기자

하나님의성회 제33차 정기총회 4월 21-24일 휴스턴서 개최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제33차 정기총회 단체사진.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제33차 정기총회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휴스턴에 위치한 휴스턴순복음교회(담임 홍형선 목사)에서 열렸다. 이사가야 50장 4절 "학자의 혀와 귀를 주소서"라는 주제의 이번 총회에는 총회에 소속된 전체 147개 교회 305명 교역자 중 160여 명이 참석했다.

21일 첫째날에는 개회 예배를 드리고 강한나, 김문기, 안태선, 오세오, 임병숙, 정영미 목사 총 6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담

임 목사가 골로새서 2장 6-7절을 본문으로 "주의 종은 어떻게 사는가?"란 제목으로 목사안수식에서 말씀을 전했다. 총회장 이광희 목사와 9명의 안수위원이 안수했다.

둘째날 22일 아침예배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미주 파송 첫번째 목사인 미 육군 군목 대령으로 예편한 박병동 목사가 설교했다. 그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선교사들, 개척교회, 신학교를 후원하고 있어 참석한 회원들에

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줬다.

아침예배 이후 성찬예배를 드린 후 사무총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교단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다. 총회장에 뉴욕 플러싱에 있는 뉴욕 순복음갈보리교회 정영호 담임 목사, 본부총회 총대로는 할렘루야 뉴욕순복음교회 이광희 담임 목사, 7개 지방회의 지방회장에 정재성 목사(동남부), 김명옥 목사(동북부), 오준택 목사(동중부), 심상은 목사(서남부), 김삼중 목사(서북부), 김신길 목사(중남부), 이원철 목사(중북부)가 선출됐다.

둘째날 저녁 부흥성회는 김삼중 목사가 사회를, 이광희 목사가 설교를 맡았다.

셋째날 아침예배 후 휴스턴 관광을 하며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순복음라스베가스 강일진 담임목사가 영어권 부흥회를 인도해 2세들과 청년 사역자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24일 아침 식사를 한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토마스 맹 기자

>> 1면에 이어서

이 소송에서 예상대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새뮤얼 알리도, 안토니 스칼리아,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 등 4명의 보수적 대법관이 찬성표를, 스테판 브레이어,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이어, 루스 킨스버그 대법관 등 4명의 진보적 대법관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앤 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지며 5대 4로 판결이 났다.

판결에 대해 케네디 대법관은 "그리스 시의 타운홀 미팅에

서 기도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마쉬 대 챔버스 소송에서도 의회의 기도가 정교 분리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연방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기도는 사실 종교적이긴 하지만 헌법의 정교 분리 조항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헌법이 구성될 때부터 의회는 기도해 왔고 이것은 의원들이 보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 사소한 차이를 초월하며 정의와 평화라는 공동의 열망을 표현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정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은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요긴히 쓰임 받는 그릇되자

디모데후서 2:19-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사울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 쓰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며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한 사울이 예수님의 한 마디에 녹아졌습니다. 그러나 눈은 멀어 장님이 되고 갈 길을 누군가에게 도움 받아야하는 상황에 접했을 때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최고학부를 공부했고 말 잘하기로 소문난 젊은이가 꿈이 꺾이는 끝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설계한 내 인생과 꿈은 이제 끝이 났고 내가 너를 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했고 자라게 했으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학업을 이루어 가게 한 것도 너를 쓰기 위한 내 그릇 삼기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울에 대한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나니아라는 사람을 시켜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실 때에 눈에서 고기비늘같은 것이 쏟아지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가 갑자기 일어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간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해치며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복음을 훼방했던 그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유럽문화의 불을 지켰으며 세계선교의 기틀을 닦고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면서 복음의 제물되는 생애로 살다 순교했습니다.

1. 요긴히 쓰임 받기 위한 조건 - 회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실 때에 회개가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전환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은 지금까지 자기인생을 자기 멋대로 설계하고 자기 꿈을 성취해 보자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허황된 것이었고 부질없어 물거품 같은 수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는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아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인으로 교회만 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마다 모두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릇으로 사용해 가시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값을 죄없는 아들을 보내시어 대신 벌 받게 하심을 깨달아 진실되고 성실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회개하면 그 모든 죄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

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겠다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2. 요긴히 쓰임 받기 위한 조건 - 진리의 깨달음

본문 전후사를 살펴보면 후메나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에 선동하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바울은 “나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딤후2:14)”했습니다. 이단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부추기며 꾀어 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주머니를 노립니다. 그 영혼을 지옥에 처넣으려고 앞장서서 끌고 갑니다. 이단사실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음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딤후2:15)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1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 같고 그 중에 후메나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했습니다. 이단은 이와 같습니다. 영혼을 노략질해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단에 휩쓸리는 영혼들은 믿음이 파산되고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멸망이 서둘러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진리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즉 마태복음 16:16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하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시몬아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하신 것이니 참으로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지옥갈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형벌의 죄악을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보증서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인침”은 사인(Sign)이나 인감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스파라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감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스파라기스’,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이단사실이 그럴싸하게 접근하여 선동하고 충동질해도 절

대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회개하고 거듭나 성령으로 인감도장 찍어 놓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28-30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세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믿어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어떠한 환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씨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 믿음이 형편없어서 잘못되어 간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받았던가 못 받았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요긴히 쓰임 받기 위한 조건 - 자야를 내려놓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보시고 계시느냐를 신경 써야 합니다.

20절에 있는 “큰 집에는” 하를 소망 가꾸는 신앙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중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금그릇에 된장을 담아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실 그릇으로 기대하시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적 기대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쓰시는 계획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

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찌어다 하였느니라” 하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무엇인가를 담아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더럽고 때가 묻어있다면 그 그릇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기록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히 쓰임받자면 자신이 금그릇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금그릇은 자기 가치로 행세하려고 들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대접받기만 좋아합니다. 혹여 부자집에 금그릇이 있어도 그것이 귀해 아무 때나 쓰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데나 놔두지 못해 금고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금그릇은 그릇의 용도보다는 존재가치에 의미를 둔 것입니다.

모든가 섬겨야 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질그릇처럼 사용 받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깨끗이 하여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에 찌들지 않고, 성별된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깨끗이 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대로 써 주십시오. 계속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어떤 일로든지 쓰임 받는 요긴한 그릇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한 그릇은 자기가치 때문에 천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스스로 자기 가치를 높여놓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한 그릇이 아닌 요긴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계속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천국 건설과 확장을 위한 일에 엄청난 공적을 쌓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예수님이 두 팔 벌려 품어 안으시며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으니 내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도록 모두 요긴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힘쓰도록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복지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기,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imjeongui@gmail.com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open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담임목사 청빙 공고

제일성도교회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1. 제출기한**
2014년 5월 30일(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2. 제출처**
(151-855) 서울시 관악구 복은길76 제일성도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3. 지원자격**
 - 1) 연령 : 45세(1969. 1. 1) ~ 55세(1960. 12. 31)
 - 2) 학력 :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총신대 신대원 졸업(M.Div. 동등학력)
 - 3) 경력 : 본 교단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부목사 포함)
 - 4) 우대조건 : 영어설교 가능자
 - 5) 선교에 뜻이 있는 자
 - 4.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역지 상세소개, 3개월내 촬영한 반영함판 사진)
 - 2) 자기소개서 및 사모 소개서 각 1부(가족소개, 성장배경, 신앙관, 목회관중)
 - 3) 목회계획서(목회동기, 철학 및 비전)
 - 4) 대학, 대학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5) 노회 소속 증명서 1부
 - 6) 최근 설교 동영상 2편(설교문 포함)
 - 7)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 8) 추천서(2인) 반드시 추천인 자필 서명
 - 9) 현재 시무교회 요람 및 주보 1개월분
 - 10) 건강진단서는 1차 합격 후 개별통지(사모포함)
 - 11) 기타 본인의 업적이나 성사(☒)관련 서류
 - 5. 참고사항**
 - ※ 서류는 봉인된 등기우편으로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앞으로 제출
 - ※ 등기 우편이 아닌 전화나 개인적인 문의로는 사절합니다.
 - ※ 면접은 서류 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성도교회 임시당회장 황원갑 목사

제일성도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네바다 주 리노에 위치하고 있는 본 리노영락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회자를 청빙 합니다.

- I. 지원 자격**
 - 1) 정규 신학 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회자로서 해외 한인 장로회(KPCA)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한 3년 이상 목회 경험과 2세 교육에 사명감과 VISION을 가진 분.
 -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II. 제출서류**
 - 1) 이력서(최근 본인 및 가족사진 포함)
 - 2) 본인 소개와 신앙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 3) 목사 안수 증명서
 -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일반 대학 졸업 증명서(optional)
 - 5) 추천서 : 목사 2명 및 장로 2명
 - 6) 최근 설교 CD 혹은 DVD 2개
- III. 제출 마감일** : 2014년 5월 23일
- IV. 제출처**
서류제출처 : Eld. Seung B. Park(청빙위원장) 120 Continental Drive Reno, NV 89509
교회주소(참고) : RENO YOUNG NAK CHURCH 3102 Skye Terrace Sparks, NV 89431
Email: sbparknv@yahoo.com
- V. 기타**
 -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치 않음.
 - 2) 서류심사를 통과한 분들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 서류 마감일자 후 10일 안에 서류심사를 통과 한분들에게 E-Mail로 연락 드림.
 - 4) 전화 문의는 사절함.
 - 5) 서류제출은 Certified Mail로 보내주시고 E-Mail로 확인 해주시길바람.

리노 영락 교회 목회자 청빙 위원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God is not dead)



남 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몇 주 전에 가족들과 함께 너무도 귀한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다. <God is not Dead>라는 영화이다. 조지아에 있는 한 사립대학에 일학년들을 시작하는 Josh Wheaton이라는 크리스천 대학생이 교양과목인 철학강좌를 듣게 된다. 그 첫 시간에 무신론자인 Raddison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과목을 무사히 이수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사인할 것을 요구한다. 종이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쓰고 그 페이퍼에 사인하라는 것이다.

모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종이에 하나님은 죽었다(God is dead)고 쓰고 사인을 하는 중에 이 크리스천 대학생 Josh Wheaton은 주저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 교수의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 그 대가로 그는 매 수업 시간 20분 전에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증명해야 했고 학기 마지막에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로부터 그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를 판결 받기로 했다.

Josh Wheaton은 처음에 하나님이 왜 죽지 않았는지를 교수에게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학문적인 근거들을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교수의 논리 앞에 수모를 당하고 만다. 그러면서 학문적 지식이 짧은 자신이 교수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힘든 것인지를 알면서 갈등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 한 가지가 있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확신이다.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수에게 맞서니까 교수가 화가 나서 막 쏘아대기에 이른다. 이때 Josh Wheston이 교수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왜 교수님은 그토록 하나님을 미워하십니까?” 이때 교수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 대답한다. “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Josh Wheaton이 다시 묻는다.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를 그 수업에 들어온 모든 학생은 Josh Wheaton과 Raddison 교수와의 논쟁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God is not dead.”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Raddison 교수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통쾌했는지 모른다. 그것은 논리성도 약하고 학문적인 지식도 없는 Josh Wheaton이라는 대학교 1년생이 그 엄청난 논리와 지식을 소유한 철학과 교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 때문이다. 어떻게 Josh Wheaton이 철학과 교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능력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논리성과 설득력이 탁월한 자를 통하여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전파되고 증명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이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만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는가? 그것은 논리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체험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 때 비로소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

진돗개와 수탉



김 세 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시골에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눈을 갓 뜬 새끼 때 주인이 어디선가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제법 덩치가 커져서 거의 송아지만해졌 습니다. 귀도 종긋하고, 어깨 골격도 호랑이처럼 웅장해졌습니다. 꼬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휘말려 위로 뻗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강인함과 용맹스러움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뿐사뿐 동네를 활보할 때면 모든 동물들이 자취를 감추고 숨기에 급급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이 진돗개에게도 천적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성질 더러운 수탉이었습니다. 크기는 이 진돗개의 십 분지 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닭이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도 당당하던 진돗개가 갑자기 꼬리를 숨기고 혼비백산해서 숨기에 바빴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숨어서도 덜덜덜 떨었습니다.

이유인 측은 이 진돗개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이 닭에게 틈만 나면 부리로 쪼이고 발톱으로 할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큰 개로 성장한 이후에도 닭은 이 진돗개만 보면 손살같이 목덜미에

올라타고 쉬지 않고 뒤뚱뒤뚱 쪼아 댔습니다. 이 닭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개가 탈모증에 걸려서 털이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심지어는 집을 가출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 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던 이 진돗 개의 기를 살려주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살벌한 닭의 눈과 한번 만 마주치면 그것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닭이 주인과 함께 살아온 햇수도 이미 십 수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정이 들었던 주인은 잡아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에게 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이 골치 아픈 문제가 어느

날 너무도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짝을 채워주려고 다른 집에서 데리고 온 암컷 진돗개가 집의 마당을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던 건방진 수탉을 보자 달려가서 반쯤 죽여 놓은 것입니다.

주인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 수탉은 그날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몰려다니 바라보던 개가 드디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십년 동안 자기를 괴롭혀 오던 악몽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닭은 결코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장난감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습관이나 선입견에 사로 잡혀서 아무 것도 아닌 존재에 잔뜩 주눅 들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조금만 달리 바라보고 생각해보면 너무도 쉽게 해결될 일인데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돗개 콤플렉스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수탉”을 혼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입니다. 수탉 따위에게 굴복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와 사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놈!”

버바 왓슨과 명함 아이디어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소개할 때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소개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명함을 만들었는데, 버바 왓슨의 글을 읽고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제 명함에 크리스천이라는 말 대신에 ‘담임목사’라고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도 김한요’라고 크게 쓰고 그 밑에 한 여자의 남편, 네 자녀의 아빠, 그리고 목사라고 조그맣게 쓸 것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디자인이 애써서 만들어 준 명함이라 그냥 버릴 수는 없고, 다음 명함은 꼭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이렇게 명함을 만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봅니다. 명함을 나눠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만해도 신이 납니다.

엄지 손가락 내밀며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도, 남편(아내),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직업, 이 순서대로 명함에 박을 분, 여기 붙여라!”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흡수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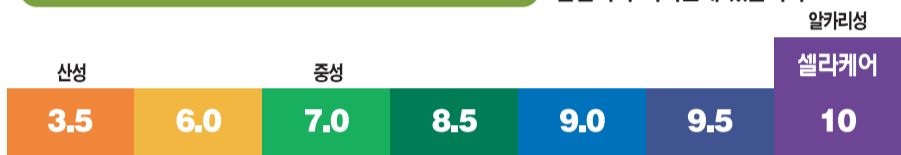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 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213-500-4471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혼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올려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아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아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전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전전의 다리,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213-258-5321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재(65세, 방배동)
등 수술 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혜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파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셋트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팍(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푹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정도 듣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었다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이야기 4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번째 시간으로 몸에 쌓인 피의 해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번의 방송에서 흡수로 구성된 우리 몸과 피 그리고 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양질의 미네랄만 섭취된다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고 세번의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고 그간의 병고침을 받으신분도 계시고 또 큰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도대체 미네랄이 무엇이길래 이런 효과가 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민수가 1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하여 모세가 열 두명의 정탐꾼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땅이 좋은지를 알기 위하여 그 땅에서 난 실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과는 과일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 돌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라고 기록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길래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어서 돌이 어깨에 매었겠습니까? 아마도 한알 한알이 복숭아 정도 중요시 여기시는데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한 10일 후에 병원에 가서서 뼈와 피의 수치를 재보시면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미네랄은 복용하신 후에 3일이면 본인이 아시게 됩니다. 여기에 좋은 미네랄을 소개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입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미네랄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몸에 쌓이는 탁한 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피는 생혈과 어혈로 되어있는데 생혈은 좋은 피로써 적혈구와 백혈구로 나뉩니다. 건강한 적혈구의 역할은 체내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 피의 온도가 36.5도를 유지시키며, 체내에 수분을 조절합니다. 나머지 또 하나 백혈구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싸우는 군인과 같은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혈구의 생명은 3일이고 백혈구의 생명은 7일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백혈구와 적혈구가 필요한데 이 필요는 미네랄에 의하여 공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대로 피는 미네랄이 필요함으로 우리 몸에 있는 뼈에서 그 영양분을 빼앗아 가게 되고 그러므로 골다공증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혈이 쌓이게 됨으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한 여러가지 질병에 걸려서 고통 받게 됩니다. 피에 관한 병들을 보면 손발 저림으로 시작해서 마비증세, 심장병, 간 질환, 폐결핵, 신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등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의 수치와 뼈에 알부민 수치를 중요시 여기시는데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한 10일 후에 병원에 가서서 뼈와 피의 수치를 재보시면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미네랄은 복용하신 후에 3일이면 본인이 아시게 됩니다. 여기에 좋은 미네랄을 소개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입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욕	201.953.0022	LA 사랑방	213.351.9552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버지니아	703.684.9199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시온약국	213.382.6485	시애틀	206.331.6655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 다운타운	213.798.3333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벨리	818.642.822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 흥판	808.359.3376	H 마트 내 H 헬스 (어바인)	949.251.0193
에스약국	323.733.778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에나하임	714.469.5809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부에나파크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캐나다	714.636.2588
가디나	714.351.0440	LA시온마켓एम마손약국	213.739.303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로리다	954.985.3928
조지아 (Power Mill)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진주전문회사 고베펄 마더스데이 앵콜 세일 KOBE PEARL LAS VEGAS



“어머니 사랑해요!”

5월 11일 마더스데이까지 쪽 이어지는 무조건!!

앵콜!

“진주대박세일!”

앵콜!! 앵콜!! 고베펄 진주보석쇼!!

지난주 성황리에 끝났던 고베펄 진주보석쇼가 미처 발걸음을 하시지 못한 여러분의 요청에 힘입어 마더스데이인 5월 11일 까지 전격 대박세일을 연장 앵콜 세일을 준비 했습니다. 행운의 실버 복돼지도 추가입고, 300불이상 구매시 증정해드립니다.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서두르세요!
마더스데이 선물용으로 최고
앵콜! 일본산 인공 핵진주 \$88 컬렉션
무조건 원가대행진

일본산 인공 핵진주?는 진주가루와 대왕조개패를 분쇄하여 진주원형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남양진주 색상을 입혀준 일본에서 제작되는 프리미엄 인공진주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원형모양으로 흠이 없는게 장점으로 많이 찾으시는 제품입니다.



핵진주 브로치
Shall Pearl Brooch
\$399 ▶ \$159 **\$88**



핵진주 펜던트
Shall Pearl Pendant
\$299 ▶ \$159 **\$88**



핵진주 반지
Shall Pearl Ring
\$399 ▶ \$159 **\$88**

* 88불 인공핵진주 컬렉션 제품은 수량과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실버 도금 CZ 세팅 제품입니다.



“가져 고베펄 빌몬캘러리아점으로!”
440 S. Vermont Ave #110
Los Angeles CA 90020

5가와 빌몬 Vermont 고베펄 갤러리아점

남양진주, 해수진주, 아코야진주 등 5000여점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이면서 화려한 천연양식진주 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 등 4000여점의 진주보석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행운의 복돼지 증정

300불 이상 구매시 선착순 증정

고베펄 천연양식 진주목걸이
파격 원가 처리 최저가 판매



- 6.5-7.5밀리 (9.25 Silver clasp 실버장식)
▶ \$499 ▶ \$99 ▶ **\$88** 부터
- 6.5-7.5밀리 30조 한정 2줄짜리 Double Strands (9.25 Silver clasp 실버장식)
▶ \$1599 ▶ \$599 ▶ **\$188** 부터
- 7-8밀리 (14K 장식)
▶ \$999 ▶ \$199 ▶ **\$188** 부터
- 8-9밀리 (14K 장식)
▶ \$1299 ▶ \$299 ▶ **\$258** 부터
- 9-10밀리 (14K 장식)
▶ \$1499 ▶ \$399 ▶ **\$358** 부터

* 원색 이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인치 제품 기준 가격입니다. 길이나 색상에 따라 추가가격이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 고베펄 진주목걸이는 일본공법 / 한국세공 제품입니다.
* 모든 고베펄 제품은 에프터서비스와 보증서가 첨부됩니다.

Helen Aiko "진주의 가치를 아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프리미엄 헬렌아이크 남양진주 아코야진주 기획전"



고베펄 페이스북 LIKE 누르고 선물도 받자!
FACEBOOK.COM/KOBEPEARL

고베펄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베펄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고베펄은 고객님들께 정직한 판매와 감동의 서비스를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고베펄은 고객님들로부터 중고 보석제품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가공 및 Recondition 제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고객님들께 최상의 신제품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KOBE PEARL 213.389.3887
문의 전화

라스베이가스 본점 953 E. Sahara Ave #E348 Las Vegas, NV 89104
로스앤젤레스 지점 440 S. Vermont Ave #110 Los Angeles, CA 90020



<한국교회사 이야기>

한국 최초 선교사 의사 알렌

한국 개신교회 시작은 선교사 내한 이전 만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인 스스로 선교사를 찾아가 세례를 받음으로 자생적으로 비롯됐다.

본격적 개신교 선교는 미국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 입국으로 시작됐다. 뒤따라 들어온 각국 선교부는 한국에 교도보를 확보하면서 서서히 한국 복음화의 길에 나섰다. 따라서 한국에는 구라파 국교회(國敎型)교회가 아닌 미국 교파형(敎派型) 교회가 정착된다.

교파형 교회는 갈등과 반목이라는 부정적 요인도 있지만,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긍정적 요인도 있어, 한국교회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교파형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인 교파 교회 난립이라는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를 후세에 남긴 것도 사실이다.

길고 지루한 준비 기간이 끝나고 1884년 9월 한국에 마침내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입국했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영세를 받은 때로부터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때였다. 따라서 1884년은 한국 개신교 선교 기점이 되는 해가 된다. 개신교 첫 선교사 영예를 얻은 이는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의사 알렌(Horace N. Allen)이다.

알렌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웅이었던 이탄 알렌(Ithan Allen) 후손으로 1858년 4월, 오하이오 주 델라웨어에서 태어났다. 그는 오하이오 웨슬리안대학을 졸업하고, 이어 신시내티에 있는 마이애미(Miami)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얻었다. 알렌이 대학에 다닐 때에 미국 전역을 휩쓴 제 2차 각성운동 영향이 각 대학으로 파급되었다. 이에 자극 받은 많은 대학생, 신학생이 선교사 지원을 하고 선교 현장으로 잇달아 나갔는데, 알렌도 이 영향을 받아 선교사를 희망하며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그는 1883년 봄 미국 북장로교회 의료 선교사로 지원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갓 결혼한 그는 1883년 25세 젊은 나이로 중국 선교의 길에 나섰다.

상해에 도착한 알렌은 몇 가지 문제로 선교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구상을 하게 되었다. 친구 의사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갈 것을 권고했다. 알렌은 뉴욕 선교본부로부터 한국행 승낙을 받고 한국으로 향해 1884년 9월 20일 제물포에 도착했다. 이로써 알렌은 한국 역사상 처음 개신교 선교사로 내한한다. 마침내 한국 개신교 선교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서울에 입성하여 미국 푸트(L.Foote) 공사를 만났고, 푸트는 알렌을 무보수 공사관 의사로 임명하였다. 공개적 선교활동을 할 수 없던 당시 상황에서 알맞은 자리였고, 합법적 거주 자격을 얻는 길이기도 했다.

알렌은 미국 공사관뿐 아니라 영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공사관과 외국 거류민들의 의사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또한 날마다 기도과 예배를 드리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때 극적으로 조선 왕실과 연결되는 사건인 갑신정변이 1884년 12월에 터졌다. 이 사건은 한국 개신교 선교사상 중대한 고비로, 언더우드네 이것을 하나님의 "기룩한 섭리"(holy providence)라 술회한 바 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수구파와 개화파로 나뉘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개화파가 수구파 거세 음모를 진행하였다. 1884년 12월 처음 근대식 우편 제도를 시행할 우정국(郵政局) 건물 낙성식(落成式)을 계기로 개화파가 수구파를 참살하는 비극이 연출되었다.

수구파 거두이며 명성황후 조카인 민영익이 전신에 칼을 일곱 군데 맞아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 미국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총장

공사 푸트와 세관 고문 필렌도르프가 민영익을 응급 처치하고 즉시 알렌에게 통지하여 급히 오도록 조치하였다.

알렌이 통지를 받고 오는 동안 벌써 어의(御醫)를 포함한 한의사 여러 명이 모여 치료를 시도했으나, 끊어진 혈관과

칼로 난자 되어 찢어진 몸을 한방 의술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현장에 당도한 알렌은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선 8도에 양의사라고는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해 치료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치료는 극적으로 효력이 나 민영익은 얼마 후 완치되었다. 민영익은 후에 알렌에게, "우리 조선 백성들은 당신을 위대한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메리카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 칭송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알렌으로 하여금 서양의 뛰어난 의술을 왕실과 고위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서양 문물의 우수성을 입증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알렌과 왕실이 급격히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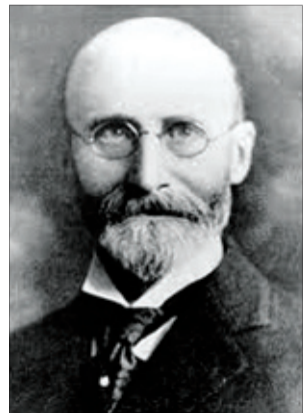
알렌은 곧 고종의 시의(侍醫)로 임명을 받게 되었고, 민영익을 구해 준 대가로 국왕으로부터 참판(參判) 벼슬까지 얻게 되었다. 이 일이 앞으로 전개되는 개신교 선교 사역에 결정적 호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알렌은 병원 설립을 서둘러 왕실로부터 허가를 받고 1885년 4월 9일에 '광혜원'(廣惠院)이란 진료소를 개설했다.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였다.

개원한 지 2주일쯤 지나 이름을 광혜원에서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제중원'(濟衆院)으로 바꾸었다. 언더우드가 입국하고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아직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때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제중원은 선교가 금지된 때 선교사들이 때를 기다리던 곳이고, 합법적으로 체재할 수 있는 거처이며 활동의 장이기도 했다. 이 제중원은 1900년도 초,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 소재 스탠다드 오일 회사 사장 루이 세브란스 씨가 당시로는 거금 1만 5천 달러를 희사함으로써, 서울 역전에 땅을 사, 근대식 2층 빌딩을 지어 새 병원으로 개원하였다. 제중원은 거액을 기부한 세브란스 씨의 이름을 따 '세브란스병원'이란 이름으로 새 출발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의과대학은 한국 의학계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일류대학병원과 의과대학으로 발전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산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계속>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혜원

교회 및 선교교회

LA 지역 교회 목록: 갈릴리선교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성안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제일교회, 라성빌라델비아교회, 새로남교회,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요한 선교교회, 영생장로교회, 임마누엘선교교회, 지구촌 농업선교회, 충현선교교회, 한우리장로교회, 박헌성 담임목사,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남가주리디머교회, 산타모니카한인교회, 김성광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교회,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류중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박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미국장로교 대서양한미노회 제49차 정기노회



제49차 대서양한미노회 정기노회 기념촬영 모습.

미국장로교(PCUSA) 대서양한미노회(AMERICAN KOREAN ATLANTIC PRESBYTERY) 제49차 정기노회가 4월 28일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총장 김창환)에서 열렸다. 정기노회에는 50여 명의 총대들과 관계자 및 목사후보생들이 참석했으며, 노회장 김윤근 목사의 사회, 부노회장 최병호 목사의 기도, 장영일 목사(전 예수교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의 설교,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총장이며 에베레셀교회 담임인 김창환 목사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장영일 목사는 신명기 6장 4-6절을 본문으로 “쉐마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삶의 행태이요 축복”이라며,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삶에 평강(shalom)이 있다”고 강조했다.

각 위원회 보고에서는 6월 둘째주부터 열리는 미국장로교 제214차 총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헌의안 중 ‘한인노회들의 헌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어 차세대 목회 디렉터 김규형 목사의 ‘Grace Retreat’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Grace Retreat’은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대서양대회와 함께 여는 가족 수련회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마들비치에 있는 킹스턴 리조트에서 열린다. 50명 이하 개척교회 목회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Grace Retreat’ 준비위원장 최병호 목사는 “제1차 수련회에 700여 명이 참석해, 올해는 1000여 명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메릴랜드장로교회 통합을 위한 행정위원회의 경과보고, HOPE교회 대책위원회의 경과보고, 공천위원회의 보고, 윌밍턴교회의 박연익 목사의 지정목사에서 위임목사로의 청원, 하인즈빌장로교회의 당회 구성 및 신동욱 목사 청빙헌의안이 통과됐다.

신동욱 목사의 신앙고백을 들은 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총회 민중부 김신배 목사의 대표기도와 동역자의 약속례가 있었다. 또한, 리치몬드 가나안장로교회 신동환 목사의 은퇴에 관한 모든 일정과 박연익 목사의 위임행정위원구성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했다.

회무를 마친 목회자들은 5월 1일까지 목회자연장교육을 받았다. 연장교육 동안에 스톤 마운틴 등산 및 마틴루터킹 기념관 등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다. 마지막 밤은 베다니장로교회(최병호 목사)에서 만찬을 가졌으며, 매 식사 때마다 하인스빌교회,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예수소망교회, 사바나장로교회 등 지역교회들이 섬겼다.

문의: 301-864-9255 (사무총장 조남홍 목사), 301-537-8522 (부서기 김범수 목사)

조요한 기자

주 안에 우린 하나 ‘제18회 워싱턴 주 성가대합창제’

서복미 부흥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것’ 다짐



제18회 워싱턴 주 성가대합창제에서 찬양하는 타코마새생명장로교회 찬양대.

워싱턴 주 한인장로교회(회장 권 정 장로)가 주최하는 제18회 워싱턴 주 성가대합창제가 지난 4일, 타코마 새생명장로교회(담임 임규영 목사)에서 성대히 열렸다.

합창제는 어린 아이부터 담임 목회자까지 세대와 직분을 넘어 참가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다. 합창제는 서복미 지역 한인 교회 가운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12개 교회와 합창단이 참가해, 서로 받은 은사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자임없는 박수로 서로를 축복하는 자리였으며,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됐다. 합창제는 김정태 장로의 사회로 워싱턴주 한인장로성가단(단장 오남석 장로)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화려한 첫 시작의 문을 열었다.

이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순복음 큰빛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 준 목사), 올림피아 한빛장로교회(담임 박준식 목사), 시애틀 온누리교회(담임 정광호 목사), 웨더렐레 선교교회(담임 박연담 목사),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담임 우경철 목사), 평안교회(담임 강성림 목사), 타코마 새생명교회(담임 임규영 목사)가 차례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다.

또 시애틀 코너스톤 남성합창단이 특별한 찬양으로 합창제를 빛냈으며, 합창제 중반부에는 김은혜 사모가 특별 찬양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회장 권 정 장로는 “워싱턴 주 성가대합창제는 전 미주에서도 손꼽히는 화합과 연합의 장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서복미의 부흥을 위해 모든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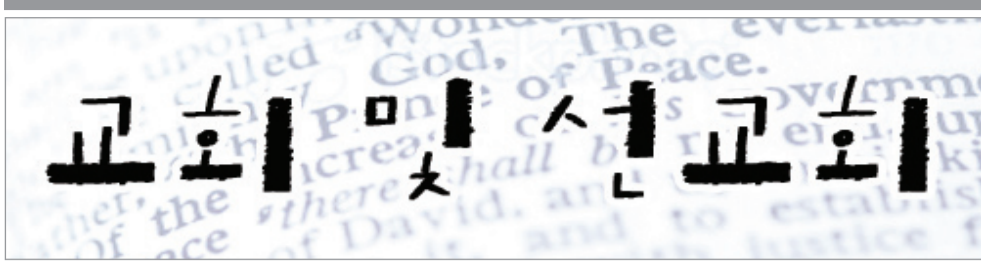
합창제 전 진행된 1부 예배는 장석태 장로(워싱턴 주 한인장로회 부회장)의 사회로 김근배 장로(순복음 큰빛교회)가 기도해, 유창렬 장로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이형석 목사(타코마중앙장로교회)가 “예배의 부흥을 찬양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형석 목사는 “예배의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 일어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면서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다함께 나아가자”고 전했다.

이날 현금 1600달러는 장로회 선교위원장을 대신해 권 정 회장이 문서선교를 위해 본지와 시애틀 미주복음방송에 전달했으며,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우릴 사용하소서”를 합창한 후 임규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워싱턴 주 성가대합창제는 18년 전 워싱턴 주 한인장로회 회장 황동규 장로와 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첫 회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 목사 | 갓스윌연합교회 | 904 E D St., Ontario, CA 91764

박해성 담임 목사 | 남가주웨슬리교회 |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김성일 담임 목사 | 빅토빌예수마음교회 | 904 E D St., Ontario, CA 91764

고태형 담임 목사 | 선한목자장로교회 |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고승희 담임 목사 | 아름다운교회 |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박신철 담임 목사 | 인랜드교회 |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이춘준 담임 목사 | 창대교회 |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양성필 담임 목사 | 하나로커뮤니티교회 | 1861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사우스 베이 지역

안병권 담임 목사 | 가나교회 |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정상용 담임 목사 |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김영구 담임 목사 | 나눔 장로교회 |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서보천 담임 목사 | 둘로스교회 |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권영국 담임 목사 | 대흥장로교회 |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박성규 담임 목사 | 주님세운교회 |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이호민 담임 목사 | 가디나선교회 |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강신권 담임 목사 | 세계성경장로교회 |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이종용 담임 목사 | 코너스톤교회 |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김바울 담임 목사 | 토렌스 조은교회 |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 목사 |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이성현 담임 목사 | 드림교회 |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최희 역 담임 목사 | 벤추라 감리교회 |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곽덕근 담임 목사 | 주안교회 |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파사데나장로교회 |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은혜와평강교회 |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시애틀 퀘스트처치, 나이지리아 납치 여중생 귀환 위해 기도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된 276명의 여중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애틀 퀘스트처치.

지난 4일 한국인 1.5세 조유진 목사가 담임하는 다민족교회 시애틀 퀘스트처치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된 276명의 여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문화가 아닌 미국 회중임에도 이날 전 성도들은 무릎을 바닥에 꿇고 납치 학생들의 무사귀환과 납치범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를 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달 14일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동북부 치복에 위치한 국립 여중을 급습해 현재 피해 학생만 최소 100명에서 27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치복시 지도자는 납치된 여중생들이 인접국 카메룬과 차드 공화국에 반군의 신부감으로 1인당 10달러 가량이 팔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모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사건 발생 보름이 넘도록 아이들의 행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나선 상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여중생들을 납치한 보코하람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미국은 이 소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범죄자들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식 교육 금지'라는 의미의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시행을 주장하며 기독교 중심의 나이지리아 정부와 학교를 상대로 테러를 일삼고 있다. 보코하람의 무차별 테러로 5년간 4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예수님 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안아 주세요”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아틀란타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4일(주일) 오후 4시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렸다.

아틀란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임연수 목사)가 주최한 이날 기도회는 세월호 참사를 당한 가족들과 한국, 한국교회, 사회각성과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됐다.

이 자리에서 마가복음 10장 13~1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김정호 목사는 “어떤 말로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겠나. 오직 하늘의 것, 예수님의 안아 주심 밖에 없다. 이 슬픔과 아픔 앞에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없다. 다만 우리도 예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함께 서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호 목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모습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번 사건에는 아픔과 슬픔을 넘어 분노와 죄책, 무기력함, 원망함이 다 담겨있다. 어디서 이 아픔을 치유 받을 수 있나. 오직 '주님 만져주세요'라고 기도드릴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호 목사는 또 “우리에겐 예수님께

서 가지셨던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이며 바로 세우는 힘이 있다. 요즘 초점이 구원과에 맞춰져 있지만 정말 구원외란 죄의식이 없나? 한국 교계의 비리를 보며 우리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다. 그 뻔뻔함을 보고 분노했다. 방관하고 두둔하지 않았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이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깨져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목사는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한다. 예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아 한다.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 그 거룩한 분노가 이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는 신윤일 목사(실로암한인교회)의 사회 아래 오대기 장로(교협 평신도 부회장)의 대표기도, 특별찬양, 합심기도(윈트웨니교회 류도형 목사, 임연수 교협 회장, 오흥수 목사회 총무, 김성범 교협 총무), 박경자 사모의 조시, 최낙신 목사(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앤더슨 기자

제4회 어린이 찬양축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가 제4회 어린이 찬양축제를 5월 4일 오후 5시 버크 소재 필그림교회(담임 손영식 목사)에서 열었다.

어린이 찬양축제는 위명희 전도사의 사회로, 양어부 목사(청교도교회)의 트럼펫 연주, 이하은 어린이(워싱턴한인장로교회)의 애국가 제창, 워싱턴교협 평신도 부회장 김영천 집사의 대표기도, 워싱턴교회 회장 최인환 목사의 환영 인사, 온누리드림교회의 에벤에셀 트리오험주와 핸드벨 연주, 필그림교회의 바다워십, 베다니장로교회의 합창, 갓스미지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커뮤니티교회의 피아노 협주, 정일남 목사(소명감리교회)의 설교, 워싱턴소리정 김은수 명창의 우리가락

지도, 워싱턴교협 총무 박상섭 목사의 광고, 워싱턴교협 경증회장 김성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지구촌마켓(대표 김중택 장로)이 어린이들을 위해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후원했다.

특히, 김은수 명창은 “예수님처럼만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은 우리가락을 지도해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예수님처럼만 살아가라!” 가사 전문.

“예수님처럼만 살아가라 알뜰히 살뜰히 예수님처럼만 살아가라 동글게 동글게 주의 보혈 흘리신 피 거룩 거룩하도록 생명의 약속 그날까지 영원하도록”

조요한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민경엽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 젖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박옥덕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허규담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usa8291@gmail.com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일 오후 7:30 (게시물 7교회)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일 오후 7:30 (게시물 7교회)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남상국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게시물) 금요일 오후 7시(게시물 7교회)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은사를 성도의 삶과 선교와 구원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김민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오후 12:3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org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성령집회 (매일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김삼도 목사 관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지 사른 담임목사 (매일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열방과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네셔널 찬양팀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6:0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 주 (토) 오전 10:00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회오리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락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장예배 오후 2:30 월요일 신학교 오후 7:30 화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인건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 오후 1: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45(월-금)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가정의 달 선물 잔치!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프로모션 A</p>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p> <p>\$400 \$100 No Tax</p>	<p>프로모션 B</p> <p>오리지널 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 =</p> <p>\$380 \$100 No Tax</p>	<p>프로모션 C</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p> <p>\$400 \$100 No Tax</p>
---	---	---



(직접 방문하시는분께 소금병 1개 무료증정)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푹푹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져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면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은.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아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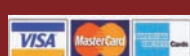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쳐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취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의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헬스, Inc. / HQ 바이오텍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先 통합 後 논의’, 조용기 목사가 적극 나서 달라

한기총 증경회장들, 성명 내고 한교연과의 통합 호소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을 비롯한 증경 및 명예회장들이 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힐튼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교연)의 통합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기총은 한경직·정진경·조용기·이만신·박맹술·지덕 목사 등의 주도 하에 한국교회 전체가 협력해 설립한 한국교회의 대표 연합기관”이라며 “한기총과 한교연은 총론에서 무조건 통합해 하나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론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한교연이 한기총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대표회장직을 사임하고 통합대표회장을 선출할 것을 원로들 앞에서 선언하고 동의했다”면서 “그러므로 통합대표회장은 원로목사들이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협의하여 공명하게 선출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한국교회 대통합을 위해 그동안 한교연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모든 것을 취하한다”며 “또한 한기총 대표회장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향후 통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조용기 목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이용규 목사(기성)가 낭독했고, 이후 참석자 전원이 서명했다. 서명자는 조용기·이만신·지덕·이용규·엄신형·조경대·오관석·백기환·이승렬·이강평·이영훈 목사, 하태조 장로 등 12명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 발표에 앞서 한기총-한교연 통합의 당위성과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선(先) 통합 후(後) 논의’ 구도를 지지하는 한편, 조용기 목사가 양측 대표들을 만나 주도적으로 통합을 설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만신 목사(기성)는 “한기총과 한교연이 조건 없이 하나되고, 남은 문제들은 그 다음에 해결하자”고 했고, 지덕 목사(기침) 역시 “복음적인 교

단은 절대 하나되어야 한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엄신형 목사(예장 개혁신연)도 “무조건(양측을) 합쳐 놓고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가 어떻게든 하나되어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현직 총회장으로서 (한기총-한교연 통합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교단 총회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통합 방안에 대해 오관석 목사(기침)는 “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조용기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양측 대표들을 만나야 할 것이다. 힘을 가진 사람이 나서야 일이 된다”고 역설했다.

이용규 목사(기성)도 “조용기 목사님께서 대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조 목사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양측 대표들을 불러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한기총 증경회장들이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조용기 목사는 “양 기관이 대표단을 구성하면 함께 모일 수 있는 일정을 잡아볼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조 목사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서도 “기독교 단체가 연합하지 못하고 사분오열 되어 있으니 사회의 어려움을 영적으로 해결할 도리가 없다”며 “세월호처럼 한국교회가 침몰해 가고 있다. 눈물로 기도하며 순교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데 밀알이 되겠다”며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치 말아 달라. 일단은 (양측이) 합친 다음 각론을 이야기했으면 한다. 대통합을 위해 한교연에 대한 고소·고발 권을 취하하고, 기득권도 내려놓겠다. 이 모든 것을 조용기 목사님께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용기 목사가 양측 대표단을 만난 후, 그 결과를 듣는 자리를 다시 갖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열흘간 금식·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울자”

세월호 관련 3주차 설교

“현실의 자녀교육 회개하자”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가 지난 25일 ‘부활주일 설교 해명’에서 밝힌 대로, 4일 주일예배에서 세월호 관련 3주차 설교를 통해 어린이 주일을 맞아 ‘현실의 자녀교육이 영육간 자녀들을 고통으로 몰고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자’는 내용을 전했다.

이찬수 목사는 ‘노엽게 하지 말고(엡 6:4)’라는 제목의 어린이주일 설교에서 세월호와 관련, 연휴가 끝나는 오는 수요일(7일)부터 그 다음주 금요일(16일)까지 열흘 동안, 저녁 8시마다 교회에서 금식과 기도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목사는 “몇 주 전 설교에서, SNS 등으로 유언비어를 퍼나르기보다 깊이 침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묵직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자고 촉구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응답을 하나 주셨다”며 “하나님 앞에서 한 끼든, 두 끼든, 열흘이든 금식을 결단하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이곳 체육관도 열고, 서현동 교육관도 열고, 다락방별로 손을 맞잡고 모여 기도해야 한다”며 “요란하게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레미야애가 2장 18-19절을 언급하면서 “바벨론에 의해 납아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라’고 권면했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자. 부모들의 무능을 용서하시고, 교회의 무능과 타락을 용서해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다음 주일인 11일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는 분당우리교회는 현월과 바자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선 “이날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날이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보기에 분당우리교회는 금지를 기절 만한 곳이라는 걸 심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사역자 출신인 이찬수 목사는 “어른들의 탐심과 탐욕으로 가 치관이 무너지고, ‘me’와 ‘money’,



이찬수 목사.

‘sex’에 끊임없이 노출돼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울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험담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영적으로 구정물을 먹이는 행위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지간하면 풀어주고 사랑하라”고 했다.

또 “올 한 해 목표는 작게는 저희 집안 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크게는 목사로서 분당우리교회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 교회 들마다 세계 복음화 같은 거창한 목표도 좋지만, 젊은이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기도하고 싶은데...”

실종자 가족 호소에 기도실 마련



팬목향에 조립식 기도실을 설치 중이다. ©최호철 목사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세월호 참사 현장에 파송한 최호철 응급의료 구조팀장이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팬목향에 기도실을 마련했다”고 전해 왔다. 기도실 위치는 팬목향 방과제로, 바다가 보이는 곳이다.

이는 팬목향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 중 기독교인들이 “불교 막사에서 계속 염불과 예불을 하고 있고, 천주교 막사에서 수도 미사를 드리는 데, 기독교는 오후 8시 기도회 한 번이 전부”라며 “기도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준비되기 시작했다.

감리회는 이에 호남선교연합회 전남 서지방과 함께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립식 기도실을 2일 설치 완료했다. 기도실은 현장에 있던 목회자 5명이 4시간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팬소 감리회 자체 응급구조 메뉴얼과 현장대응 시스템을 준비해 재해·재난에 대비한 상실 조직운영을 요구해 왔던 최호철 팀장은, 국제응급구조사로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가면서 (재)국제응급구조의료지원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감리회 측은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 막사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무척 불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대웅 기자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 행사용 CAKE 및 빵 주문시 할인해 드립니다”

operahousebakery@gmail.com
T. (213)384-1999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웨딩케익 및 단체주문 환영

美 복음주의 목회자들, 이민법 개혁 촉구

시애틀 웨스트처치 유진 조 목사

“세계의 소외된 지역에서 온 이들 품어야”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는 시애틀 웨스트처치 유진 조 목사.

250명이 넘는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지난 29일 워싱턴DC에 모여 이민법 개혁을 촉구했다. 미국 인종주의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기독교공동체발전협회(CDDA)의 창립자 존 퍼킨스 목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 운동에 복음주의자들의 존재감은 미미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며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영예롭게 여긴다”며,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이 사회에 반영되기를 원했지만 복음주의자들은 이들의 편에 서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민자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여기 서 있다. 이제는 이민법 개혁을 위해 정부가 결단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퍼킨스 목사를 비롯한 250명의 목회자들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전 이미 열흘 동안 13개 주에서 각 주의 의회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민법 개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기자회견을 가져 왔다.

시애틀 웨스트처치 유진 조 목사는 “나 역시 이민자로서의 경험을 했고 이는 내가 이민법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다. 조 목사는 6세 때 부모를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미국은 ‘더 나은 기회의 땅’이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성경적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일에 미국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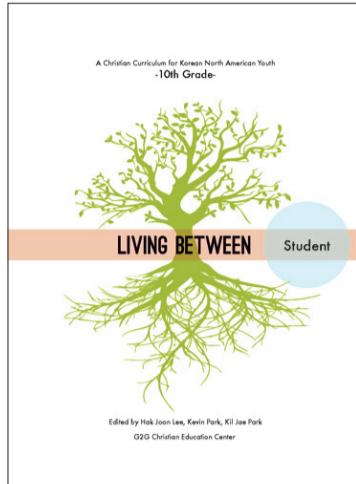
남침례신학교 페이지 패터슨 회장은 “이민법 개혁은 미국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이유에서, 적절한 일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해 줄 수 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나라로 남아 있다.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보호와 기회를 찾아 온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의 팔을 벌여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CJU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영어권 자녀, 한어권 부모 위한 신앙 교재 호평

청소년용 영어 교재와 부모용 한국어 교재 동시 발간



청소년용 영어 교재 'Living Between'



부모용 한국어 교재 사다리가 되어주는 부모

G2G교육연구소(Generation to Generation Christian Education Center, 소장 이학준 박사)가 미주 한인 이민역사상 최초로 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신앙 교재를 발간했다. 현재 발간된 교재는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32과로 이뤄져 있다. 이름은 <Living Between(사이에 사는 삶)>이다. 11학년과 12학년용 교재도 준비 중이다.

이 교재는 이민교회 신학생들에 의해 제작되어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2세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0년이 넘는 한인 이민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세 청소년들은 마땅한 신앙 교육 교재 없이 한국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나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영어 교재를 사용해 온 현실이었다. 한국의 출판사 가운데 영어 교재를 발간하는 곳들이 간혹 있었지만 특별히 미주 이민교회의 정서를 반영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던 터였다.

이 교재를 제작한 G2G는 이학준 박사, 케빈 박 박사, 박길재 박사와 여러 2세 스태프들이 일하는 초교과적 싱크탱크로서, 이미 지난 2011년에 2세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iDentity>라는 교재를 개발할 정도로 미주 2세 사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학부모, 교사 강습회를 열

고 이민 2세대들의 신앙 전수와 정체성 확립에 힘써 왔다. 청소년과 교사를 위한 영어 교재 <Living Between>과 함께 학부모용 한국어 교재 <사다리가 되어주는 부모>도 함께 발간됐다. 주일학교에만 머무는 신앙 교육의 한계를 실감한 이 연구소는 교사-부모-학생이 영적 유가체가 되어 신앙을 나누고 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를 위한 한국어 교재도 만든 것이다.

한편, 이 교재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풀러신학교의 마크 래버튼 총장은 “이 교재는 한인 청소년들의 문화에 잘 맞추어져 있으며 창조적이고 전문적이고 성서적이다”라고 평했으며 그렉 마스트 뉴브런스워신학교 총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득력 있게 말하는 탁월한 교재”라고 했다. 커스틴 오 아주사대학교 교수는 “문화의 경계 사이에서 살고 있는 북미주 한인 청소년들과 교회, 선교단체에 더 없이 좋은 교재”라고 추천했다.



소장 이학준 박사

학부모 교재에 관해서 풀러신학교의 엄예선 교수는 “이 책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좋은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라고 했다. 패밀리터치의 정정숙 원장은 “청소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고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부모가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안내해 주고 있다”고 평했다.

이 연구소는 이 교재의 출판을 기념하며 교재 활용법을 시연하는 행사를 영어권과 한어권으로 나누어 개최한다. 영어권 행사는 5월 12일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2시까지 풀러신학교 내(Chang Commons Theme Room, 271 N. Madison Ave. Pasadena, CA 91101)에서 열린다. 여기서는 켈 폰 박사(Fuller Asian American Initiative 디렉터), 아이린 조 디렉터(Fuller Youth Institute), 이학준 박사(소장, 풀러신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논찬한다.

한어권 행사는 5월 22일 저녁 6시부터 뉴저지 아플라연합감리교회(50 S. Paramus Rd. Paramus, NJ 07652)에서 열리며 안명훈 목사(아플라연합감리교회), 정정숙 박사, 노승환 목사(KODIA 대표, 토론토모탈교회), 이학준 박사가 발제한다.

한어권은 LA에서도 한 차례 더 행사가 있다. 6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발제, 오후 1시부터 교육세미나가 파사데나장로교회(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대표, 나성영교회 은퇴목사),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목사), 노승환 목사, 이학준 박사가 발제한다.

한편, 이 교재는 북미한인기독교교육연구소(KODIA, Korean Diaspora Christian Education Institute)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 문의 : www.g2gcenter.org
626-639-8107
김준형 기자

쇼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배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입학자격 : 대학 60학점 이수하실 분, 대학 60 학점 이수 하신분, 대학 졸업자, 의료계 종사자(간호사, 물리 치료사, 약사, 의사, 카이로 프랙터)
입 학 : 수시 입학 상담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 많고 유능한 교수의료진 서비스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9047 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죽음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줘



지난 5월 1일 LA동부교협이 죽음을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다.

LA동부교협 '죽음'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

“죽음 앞두고 화해와 용서, 사랑이 가장 중요”

바울의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처럼 더 의욕적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집이 버려져 있는 도시 뉴올리언스의 토박이 설치예술가 캔디 창(Candy Chang)은 자신의 집 근처 버려진 집 벽 한 면을 칠판으로 만들고 “나는 죽기 전에 ___을 하고 싶다(Before I die I want to)”라고 적은 후 빈칸을 남겨 놓고 누구나 글을 남길 수 있게 분필을 준비해 놓았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사람들이 적어놓은, 웃음을 짓게 하고,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소망들로 가득 찬 벽을 보게 된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호주, 아르헨티나 등 전세계로 퍼져 사람들의 꿈과 염원을 나누는 통로가 되고 있다.

캔디 창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전한다.

“2009년 저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안이고, 그녀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게 일어났고 저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건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줬고,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말한다.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죽음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 없이는 피상적인 가르침에 그치고 만다. 성경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많은 생명을 살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 가르치며 사도 바울은 어떤 세상 권력으로도, 지혜로도, 돈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마지막 지점인 죽음을 향해 “사랑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

채 쫓을 피우지 못한 어린 생명을 하늘로 떠나보내게 한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계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넘어서 있지만 우리에게 죽음의 불가해성은 여전히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남아있다.

전도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전7:2)고 말한다.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인생의 깊은 지혜가 나오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LA동부교협은 5월 1일 선한정치기교회에 모여 “웰라이빙(Well Living)”을 주제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웰라이빙은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Well Living과 Well Leaving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삶을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를 지닌다.

송병주 목사(선한정치기교회 담임, 교협 총무)의 발제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전병주 목사(나성한미교회, 교협 회장), 양성필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 교협 서기),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문병용(유니온교회 담임),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등이 참석했다.

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에 가장 집착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었다. 오히려 불교인들은 죽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기독교에서 너무 한 측면만 강조하고 죽음의 영성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족식, 성찬식, 장례예배와 관련해 다양한 제안도 나왔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원에 있는 사람 중 아직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이 모여 성찬식이나 세족식을 거행해 관계 회복을 돕고 또 이 장면을 영상에 담아 고인을 추억할 수 있게 돕는다. 혹은 부모님이 가족들 모르게 교회에 200불 정도를 맡겨 놓으면, 임종 이후 몇 년간 가족들의 생일에 맞춰 부모님 성함으로 꽃배달을 해 줄 수도 있다.

송 목사는 마지막을 앞두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 운전자가 일으킨 6중 추돌 교통사고



송병주 목사(선한정치기교회 담임)가 세미나를 이끌었다.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에 나오는 ‘마치다(finish)’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의욕을 잃은 채 수동적으로 죽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스피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대만에 있었던 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과 캔디 창

위해 ‘친밀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친밀감이 50대 이후 남성에게 있어 채워지지 않는 중요한 욕구 중 하나라며 아이들에게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칭찬과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며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 입관으로 끝나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창세기 안에 시작과 끝이 담겨 있다. 창세기 50장 26절과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병행해 놓고 보면 요셉의 입관한 지 400년 이후 하관이 이뤄지며, 요셉의 죽음이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이미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버킷리스트를 단순한 ‘하고 싶은 일’에서 복음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일’ 즉 ‘사명’으로 전환해야 하며 물질의 유산이 아닌 ‘관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죽음을 앞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와 용서, 사랑’임을 확인한 후 기도로 마지막 강의를 마쳤다.

동부교협은 이달 15일 동부사랑교회에서 목회자 탁구대회를 연다. 또 다음달 12일과 13일 오후 8시에 이필찬 교수를 초청해 평신도를 대상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16일,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9월과 11월에 선한정치기교회와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운동친교모임이 있다. 주디 한 기자

“교회가 죽음의 영성에 관심 가져야”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로부터

‘의미있는 사명’ 찾아 주라

세미나는 총 4강으로 이뤄졌고 강의와 관련 영상 및 이미지 자료를 보고 회고록 ‘엔딩노트’를 간단히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교회가 죽음의 영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임종을 앞둔 이와 그 가족을 위한 세족식과 성찬식, 장례예배, 죽을 때 후회하는 내용, 죽음을 앞두고 회복해야 하는 ‘감사’에 대해 논의했다.

송 목사는 양로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이야기를 전하며 죽음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LA 양로병원의 한 간호사가 기독교에서 불교를 개종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환자 중 가장 짜증을 많이 부리고 끝

로 전신의 절반 이상에 5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의 간증을 인용했다.

“하루 18명이 사망해 실려 나가는 중환자실에 머물며, 뼈와 지방과 붉은 살이 드러난 다리를 보며 삶을 포기하려 한 이지선 씨는 엄마가 한 말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하자’가 자신을 회복시킨 계기가 됐다고 한다.”

송 목사는 삶의 마무리를 돕는 ‘엔딩노트’를 소개하며 선진이 남긴 일기장을 통해 아버지와 비로소 대화하게 됐다고 고백한 박재동 화백의 이야기를 전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나왔다. 송 목사는 ‘죽음’의 개념을 ‘나의 달려갈

의 영상을 시청한 후 각자의 버킷리스트(하고 싶은 일을 정리한 목록)를 간단히 작성했다.

“죽마고우였던 할아버지 5명이 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된다. 평균 나이 81세, 이들은 모두 퇴행성 관절염을, 세 명은 심장질환을, 한 명은 암, 또 한 명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다. 한 명이 갑자기 ‘바이크를 타자!’고 외치자 모두 의기투합해 차에 있던 먼지 쌓인 바이크를 꺼내 6개월간 준비한 후 1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이들을 달리게 한 것은 바로 꿈이었다.”

송 목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힘내라는 말
김요한 | 바이북스 | 248쪽

문화사역을 하는 와플 대표인 저자가 전하는 희망 메시지. 심오함, 화려한 연술, 감정예의 호소 등을 버리고 느낀 바를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전하고 있다. 63편의 에세이에 함께한 63장의 사진들이 여운을 느끼게 한다. 부제 '당신의 마음에 잔잔히 새겨질 희망 일기'.



다시들어야 할 처음복음
이동원 | 두란노 | 260쪽

저자 이동원 목사가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풀어냈다. 복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며, 한국교회의 위기를 탈출할 단 하나의 비상구라는 것. 이 목사는 신약 각 권의 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익숙해진 복음에서 탈피해 새로운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설 것'을 촉구한다.



엄마 마음,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 더드림 | 224쪽

부제 '나를 열고 자녀를 바라보는 힐링맘 프로젝트'. 자녀양육 책으로는 독특하게 '엄마가 먼저 회복돼야 함'을 역설한다. 엄마이기에 앞서 누군가의 딸로서,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엄마 자신의 감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6가지 돌봄 과정을 거친다.



당신이 있어 세상은 살 만합니다
권태일 | 오픈하우스 | 232쪽

지난 10년간 후원자들의 매일 아침을 상쾌하게 하면서 용기를 줬던 '사랑밭 새벽편지'의 주인공이 수많은 글들 중에서 엄선한 80편을 책으로 엮었다. 가족간의 사랑, 사제간의 존경과 감사, 친구 사이의 우정,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 등 짧지만 뭉클한 에세이들로 가득하다.



REVIEW

타인을 위한 은사: 희생과 중보기도, 죄사함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타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하고 그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실제로 타인을 죄에서 구해 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39세에 교수형을 당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는 출판사 좋은씨앗의 '행동하는 신앙 시리즈' 두 번째 편이다. 이 시리즈는 독일에서 출간된 본회퍼의 설교와 여러 글들을 묶

은 전집 중 국내에 발표되지 않은 글들을 주제별로 엮은 것이다. 본회퍼는 바르셀로나와 런던 및 독일 등지에서 전한 설교를 통해, 특히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고전 12:26-27)'라는 제목의 두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요구는 “교회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란 외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가톨릭교회와 상반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Leib Christi sein)'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죄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교회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교회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타인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 사람이 타인의 죄를, 즉 내가 상대방의 죄를, 상대방이 나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죄의 짐을

벗게 해 주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허락하셨다. 이 희생과 중보기도, 죄사함은 한 마디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 다른 말로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는 것(dem

anderen zum Christus werden)'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은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흘리신 피의 능력을 말합니다.” 본회퍼는 “매우 힘없고 연약한 우리 시대, 가련하고 비참하며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의 도움은 오직 한 사람이 사랑으로 타인을 감당하는 곳인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에는 이외에도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로마서 11:6)',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을까?(예레미야 20:7)',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고린도전서 13:1-3)' 등의 설교가 나와 있다. 이대웅 기자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디트리히 본회퍼 좋은씨앗 | 176쪽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데모집”

<2014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

- 2014. 8.18~8.29 - 이스라엘 단기선교(10박11일) \$1,999
- 2014. 9.1~9.6 - 한국 선교지(순교지) 성지순례(5박6일) \$1,799
- 2014. 11.3~11.12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2,599
- 2014. 11.3~11.14 -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3개국(11박12일) \$2,899
- 2014. 11.10~11.17 - 터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 2014. 11.10~11.19 - 터키, 그리스 2개국(9박10일) \$2,599
- 2014. 11.10~11.22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5월~7월 등록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모세의 출애굽의 땅! 예수님의 부활의 땅!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그 땅!
바로 그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과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 성지순례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성령의 땅을 밟기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오른쪽 안내와 같이 금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을 참고하시고,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롬!

상처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고 받는 성경적인 방법

〈Help 헬프〉

온정주의 피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 갖추도록 기다리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이 땅은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보다 고난당한 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함께 울어줘야 할 것이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돕게 하는 도서를 살펴 본다.

부제가 '상처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고 받는 성경적인 방법'이다. 최근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비록 책의 포커스를 '가난한 이웃'에 맞추고 있지만 저 '마음이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 번쯤 들 어볼 만한 이야기이다.

경제개발 전문가와 NGO 사역자인 저자들은 "인간 생활의 어느 부분도 단독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는 없고,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가난한 사람들도 육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다양한 필요를 지닌다"며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적절하게 개입하려면 경제적 개발이나 보건, 교육이나 농업, 영성 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 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가 있지만 각 개인이 실천할 때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

저자들은 먼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을 말씀과 행동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교

회도 그 분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특히 아프고 연약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기를 즐겨하셨다"며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공의와 정의, 평화의 왕국을 도래하게 하시는 분임을 공표함으로써 그분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일은 예수님이 일하시던 곳 즉 장님들과 병자, 버림 받은 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행해야 한다"고 답한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지만, 성경은 지역교회들이 이 일을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자유를 부여한다. 저자들은 이를 '중요한 임무, 그러나 배타적이진 않은 임무'라 표현한다. 어떻게 할지 가장 좋은 길을 찾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며, 지역교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벗어나 사역을 수행할 때도 반드시 사람들의 영적 삶에 관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지역교회와 연계해 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들은 조언했다.

어떤 상황이든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제일 처음 할 일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구체나 복구, 개발 가운데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빈곤을 줄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단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미국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들 가운데



헬프 | 스티브 코벳
브라이언 퍼커트
DMI | 364쪽

것으로 '응급지혈'에 해당하고, 복구(Rehabilitation)는 지혈 후 시작하는 것으로 사람들과 공동체를 재난 이전의 긍정적 요소들로 돌려놓는 일이다. 마지막 개발(Development)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 즉 도와주는 사람들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과 기타 창조세계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엔 각각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응급지혈에만 급급하다 보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그러한 '온정주의'를 피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한다. 특히 '영적 온정주의'에 대해 그들은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물질적으로 빈곤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설교단에서,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때로는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우리에게 알려줄 영감과 경험을 지니기도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말을 멈추고 그들에게 귀를 열 준비만 돼 있다면 말이다. 이 외에도 물자·지식·노동·관리 등의 '온정주의'가 있을 수 있다.

물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투자 대비 가장 큰 수익"이라는 사실이다. 심원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예를 들어 '기증한 기계들'이 결국 별판에 버려져 녹이 슬게 하지 않으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지 여부도 결정하도록 하는 점진적 과정을 참고 인내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기부를 하고 나면 즉각적인 변화와 결과물을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을 예 들어 표현한 말이다.

앞에 나왔던 부제처럼 '상처를 주지 않고' 이웃을 도우려면, 이웃 사랑에 '성경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저자들은 교회와 사역자들이 자신에게 기초해 참여자향적인 개발과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들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인격적인 변화를 위한 방아쇠를 만들라 ②도움을 줄 사람들을 동원하라 ③눈에 띄는 성공의 흔적을 빨

리 찾아 보라 ④행동하며 배우라 ⑤변화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빈곤한 사람들만이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우리는 다양한 면에서 빈곤하기 때문에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면서 영속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비결 같은 것은 없다"며 "개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과 성령의 힘에 의지하는, 기본적으로 아주 힘든 과정"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이 모든 기법이나 도구들보다 중요한 단계는 바로 '회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회 구제사역 담당자나 목회자, NGO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이다.

"만약 당신이 물질적인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려면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이 물질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딜 때, 즉 근대적인 세계관을 회개할 때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답, 곧 당신의 세상과 연관되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고치시며 당신을 하나님과 자신, 다른 사람들, 기타 창조세계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과 물질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모두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만드시는 왕, 골로새서 1장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웅 기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

갈수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은 수많은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안겼다. '생존자 죄책감(Survivor's Guilt)'이나 심할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염려되고 있으며, 심지어 전 국민들에게 '트라우마'가 남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고통받고 있는 영혼
에이미 심슨
CLC | 384쪽

〈고통받고 있는 영혼〉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으로 힘들어 하며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정신질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론적이나 의학적인 설명 대신, 정신질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당하는 고통과 소외와 어려움을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들려주는 데 치중한다.

책의 저자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이고 열린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신질환이라는 고통은 일반적으로 단절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감정이입을 경험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순간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교회로 가지만, 자신들을 아프게 만드는 교회의 냉랭한 시선과 행동에 충격을 받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은 '교회의 높은 벽' 안에서 낙인찍기, 비난, 침묵, 인내력 부족, 관용은 적하는 가장(假裝), 어떠한 혼란도 용납하지 않음,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석함 등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크리스천은 고통받지 않는다'는 비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저주받은 듯한 감정에 몸서리치기도 한다. 그리

고 정신질환을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는 자료조차 부족한 상태여서, 목회자들은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이 영적 고갈을 경험하기도 한다.

저자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 증상에 대한 도움을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장소는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에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리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 붓기 위하여 성령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교회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정신질환과 싸우고 있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 또는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소그룹을 구성해 교제하는 것이다. 저자는 잘 알려진 멘토포크장로교회를 비롯해 노스캐롤라이나 제일장로교회, 밴쿠버 뉴하이트교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시도하려는 교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 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체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병이나 인슐린으로 인한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유망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병 개선제입니다.

당뇨병 예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병이나 인슐린으로 인한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유망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병 개선제입니다.

2병 \$12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적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 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사과 판다 New & Used Buy & Sell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미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치우차우만두

찐빵, 고기만두, 김치만두, 아채만두, 울만두,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자신의 효능을 느껴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동의당뇨환!

동의당뇨환II

당뇨병, 이제 3일이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당뇨환II의 특징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1. 100% 순수 한국산 천연 한약재만을 사용
2. 처음부터 혈당 강하제, 인슐린 주사를 끊게해 줌
3. 1~2주내에 정상 혈당치로 돌아옴
4.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최대의 합병증을 억제해 줌
5. 식후 3회만 복용합니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2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wi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4 스페셜 LEASE 프로그램과 2013 모델 스페셜

창고정리 대세일!!

2014 SONATA GLS ALL IN STOCK @ \$22,425 Lease for \$99 PLUS TAX @ 36 MONTHS

2014 SANTA FE SPORT 2.4 ALL IN STOCK @ 26,115 Lease for \$199 PLUS TAX @ 36 MONTHS

2013 GENESIS COUPE 2.0T M/T ALL IN STOCK @ 25,490 WIN SAVINGS \$3,100 Retail Bonus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UP TO \$5,000 OFF

2013 GENESIS Sedan 3.8 플러스 ALL IN STOCK @ 44,385 WIN SAVINGS \$6,100 Retail Bonus Cash \$1,500 100% COMPETITIVE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UP TO \$10,000 OFF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e: 310.830.5100 (Ext 653) Cell: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다 나가기전에 빨리 전화주세요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아이들에게 맑은 물 선물하는 굿네이버스와 시편교회



소망우물 프로젝트 통해 아프리카 차드에 200개의 우물 설치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



아프리카 중심부에 자리 잡은 차드 공화국. 북쪽으로는 리비아, 남쪽으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동쪽으로는 수단, 서쪽으로는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과 국경을 접한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으나 1975년 독재정권이 자리 잡은 후 내전, 부족 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53.1%)가 가장 많으며 가톨릭(20.1%), 개신교(14.2%)가 그 뒤를 잇는다.

차드인들은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오염수를 마신다. 이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말라리아,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은 이곳의 일상이 됐다.

2010년 3월 굿네이버스USA는 소망우물 프로젝트를 시작해 현재 200개의 우물을 파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있다. 기독일보는 이 소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굿네이버스USA의 김재학 실장과 이 프로젝트에 동참한 시편교회의 박상순 담임목사를 만났다.

소망 우물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박상순 목사: 우연히 우물 얘기를 접했다. 너무 창조적인 사업이란 생각이 들었다. 교우들에게 얘기하니 모두 동참하고 싶어 했다. 찾아보니 우물 파기를 후원하는 곳이 많이 있었다. 그 중 굿네이버스가 후원금 중 경비를 최소화해 지역 사회에 전달하고 있었다. 3,000불에서 3,500불이면 우물 하나를 파서 몇 백 명이 산다. 의외로 이런 사역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김재학 실장: 선교단체는 아니나 차드에서 일하는 지부장님들, 직원들이 크리스천이다. 제가 만난 차드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우물을 파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아무 조건 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우물을 파줬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물을 관리하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우물만 파주는 게 아니라 5년 동안은 우물이 망가지거나 마르면 다시 우물을 파주고 수리해주고 그 이후 5년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게 교육한다.

소망 우물 프로젝트란?



김재학 실장: 소망 소사이터티, 굿네이버스, 중앙일보 세 단체가 연합해 2010년 3월에 시작했다. 지금까지 200개를 파고 현재는 12개를 더 파고 있다.

차드는 국토 절반 이상이 사하라 사막이라 식수가 부족해 우기 때 고여 있던 웅덩이 물을 살기 위해 먹는다. 말릴 틈도 없이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신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디를 가든 물이 필요하다.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 마음들이 모여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물을 구하러 4시간을 걸어야 하고 뜨거운 낮시간을 피해 밤늦게 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받는다. 따라서 우물을 집 근처, 학교 근처에 파주고 있다. 우물 파기 뿐 아니라 그 지역 사회 개발 등 장기 계획도 갖고 있다. 잠비아 같은 인근 국가에도 우물을 파주고 있다. 아쿠아라이프라는 정수기 업체도 연락을 주셔서 후원을 약속해 주셨다.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소망 우물 프로젝트는 선교와 관련해 어떤 의미를 지니나?

우리 선교는 같이 살아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신 동시에 같이 생활해 주셨다. 무슬림은 개종 즉시 죽을 수 있기에 개종을 강요하진 않는다. 저희는 개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크리스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놓으면 선교에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박상순 목사: 한국 선교도 의료사업으로 시작했다. 삶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지게 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이다. 굿네이버스 안에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사람이 사랑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다.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이니 그 분들의 삶 안에 복음이 녹아내린다.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듯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를 리가 없다.

우리 선교는 같이 살아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신 동시에 같이 생활해 주셨다. 무슬림은 개종 즉시 죽을 수 있기에 개종을 강요하진 않는다. 저희는 개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크리스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놓으면 선교에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이 프로젝트를 돕고 있는 시편교회 교인들의 반응은?

박상순 목사: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한다. 부활절, 성탄절 헌금은 모두 굿네이버스 후원비로 보낸다. 교회 재정에 부족한 부분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인들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게 보인다.

시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박상순 목사: 산타 클라리타 시에 있다. 개척한 지 4년 정도 됐고 교인수는 성인 30명, 어린이 41명이며 대부분 가정들이다. '주님을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게 꿈이다.

현지 반응은 어떤가?

김재학 실장: 열정적이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촌장님을 비롯해 주민들이 다 나왔다. 다 저희 손을 잡고 악수하고 없는 중에도 염소를 잡아서 대접해줬다.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 꺼안고 소리를 지른다. 그 광경이 잊혀지지 않는다. 차드 정부로부터 우물 파는 걸 도와달라는 전화도 많이 온다.

우물은 어떻게 파나?

김재학 실장: 손으로 판다. 지상 200미터 아래 암반수가 있는데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기계를 이용해서 파려면 무거운 장비를 옮기기 어렵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현지 인력 4명이 이틀, 하루 반나절 만에 35미터, 40미터를 판 후 펌프를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펌프질도 쉽지 않다. 수도 설비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당장 마실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우물이 필요하다. 우물 하나를 파면 최대 4,000명이 마실 수 있다.

박상순 목사: 지금 현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 물탱크를 설치했는데 관리가 안돼서 폐기물이 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그 지역 사회의 개발로 나가기 위한 첫 단추라 생각한다.

김재학 실장: 사하라 사막 인근 마을에 우물을 파줬다. 원래 그곳은 1,000명 가까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물이 말라 300명 정도로 인구가 줄었다. 우물을 판 후 그곳 경기가 회복돼자 술탄이 마을 염전을 통해 번 돈으로 우물을 새로 판다. 제가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술탄의 첫 번째 부인이 저와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대통령 방문처럼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다. 술탄이 앞으로 우물을 계속 파겠다고 우리에게 학교와 의료시설 설립을 부탁했다. 이처럼 작은 도움을 통해 한 마을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살아난다. 또 소망 우물 프로젝트 초창기에 우물을 파준 한 마을의 리더가 목회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가까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물이 말라 300명 정도로 인구가 줄었다. 우물을 판 후 그곳 경기가 회복돼자 술탄이 마을 염전을 통해 번 돈으로 우물을 새로 판다. 제가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술탄의 첫 번째 부인이 저와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대통령 방문처럼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다. 술탄이 앞으로 우물을 계속 파겠다고 우리에게 학교와 의료시설 설립을 부탁했다. 이처럼 작은 도움을 통해 한 마을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살아난다. 또 소망 우물 프로젝트 초창기에 우물을 파준 한 마을의 리더가 목회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차드 기후는 어떤가?

김재학 실장: 5-7월이 우기다. 그러나 땅이 저장능력이 없다. 오히려 우기에 물이 범람해 오염돼 말라리아,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이 늘어난다. 저수지와 댐이 필요하다. 우기 때 물만 잘 저장해도 식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차드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김재학 실장: 독재정권이다. 현재 중국에서 석유를 가져가기 위해 차드에도 도로를 깔고 있고 중국 자본이 들어가 차드의 자원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다. 정부가 자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되길 바란다.

차드를 향한 소망은?

김재학 실장: 조금만 도와주면 사람들이 금방 회복될 거 같다. 석유도 나오고 남부지역에는 옥토가 있어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하며 사람들도 열심히 산다. 다만 내륙국가라 물가가 비싸고 수산물이 부족하다. 식량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캘리포니아도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듯, 차드에서도 이런 사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이 차드 지부의 꿈이다.

박상순 목사: 누군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선한 일을 계획한다면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또 우리 교회의 사례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한다. 크건 작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해드리길 소망한다.



2010년 3월 굿네이버스USA는 소망 소사이터티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차드에 소망 우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진: 김상동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피하고 싶은 더러운 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마실 수 밖에 없는 물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10억 인구중 5억 8천만 명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한 해 수인성질병으로 사망하는 아동만도 1,500만명에 이릅니다.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 기관으로써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우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Good Neighbors

후원신청: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PH Puente Hills Hyundai Special Event

NEW



ALL NEW 2015 GENESIS SEDAN

새로운 디자인의 2015년형 제네시스 세단이 입고되었습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딜러 showroom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게 문의하세요-

NEW



2014 HYUNDAI SONATA GLS

\$89 ^{+TAX} **36** Mon.

MSRP: \$22,350. 36 month lease. After \$2,999 due at leas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45,170 ^{+FEES}

Stock# DU070328, DU069919 MSRP: \$60,170

SAVE UP TO **\$15,000**



NEW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스티브 강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